

## 大學文化의 未來

李 相 周

(江原大 總長)

## I

大學文化는 사회문화의 한 部分文化이다. 대학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思考方式과 行動形態를 통털어 大學文化라고 한다. 대학은 지식을 창조하고 전수하고 응용하는 사회조직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향유한다.

大學文化는 시대에 따라 그 특성이 변천한다. 傳統社會의 대학은 대체로 上層階層만을 위한 엘리트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貴族主義的 文化를 누렸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傳統的 大學에서는 古典을 중심으로 한 人文的 文化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사회의 실생활로부터 초연한 위치에서 純粹學問을 연구하는 상아탑적인 문화를 가졌다. 그러나 現代社會의 대학은 모든 계층의 국민을 위한 大衆教育을 실시함으로써 平等主義的 文化를 지니고 있으며 자연과학을 포함한 모든 영역과 세계의 넓은 文化領域을 포괄하는 普遍的 文化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대학은 사회의 改良과 대중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직접 짊어짐으로써 대학문화가 實用主義的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관계없이 學問의 自由는 大學文化의 根幹을 이루어 왔다. 대학은 기존의 권위와 도그마의 慣行으로부터 독립하여 진리 탐구를

위한 理性的 批判과 創造的 研究를 자유롭게 행하기 위해서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학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왔다. 學問의 自由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大學文化의 根本성격을 좌우하는 주요 측면이다.

現代大學에서는 대학생들이 독특한 青年文化를 형성함으로써 大學生文化가 대학문화의 두드러진 下位文化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교수나 성인들과는 다른 大學生들의 독특한 意識構造나 價値觀 또는 그들만의 특이한 언어, 외양, 취미 활동, 생활스타일 등을 통털어 大學生文化로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에서 大學生文化가 더욱 뚜렷하게 생성되고 있으며 점차 더 큰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大學文化와 大學生文化가 다가오는 未來에 어떻게 변천해 갈 것이며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변천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본 小考의 의도이다.

## II

한국에 있어서 大學文化의 變化方向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未來像을 먼저 그려 볼 필요가 있다. 未來社會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예견하기 위해서는 그것대로 방대한 연구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국 사회의 예상

되는 변동추세의 몇 가지 큰 줄기만을 잡아 볼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는 앞으로 高度工業에 더 크게 의존하는 先進國型 産業社會로 발전해 갈 것으로 보인다. 전자, 기계, 정밀기계 및 산업시설 부문 등의 발전으로 技術集約的 産業構造가 나타날 것이며 경제활동이 더욱 기계화되고 자동화되어 갈 것이 예상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숙련직, 관리직과 같은 고급인력의 수요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 의한 끊임없는 技術革新을 더욱 강력히 요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국가의 經濟發展은 대학의 教育 및 研究機能의 效率性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좌우될 것이 전망된다.

한국 사회의 구조는 앞으로 더욱 분화하고 다원화할 것이며 더욱 複合的인 都市社會로 변모해 갈 것이다.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2000년경까지 적어도 전체 인구의 4분의 3 정도가 都市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인구가 크게 집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범죄, 청소년 비행, 주택 부족, 교통 혼란, 환경 오염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社會問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社會構造의 分化和 多元化는 價値葛藤과 사회집단간의 대립과 마찰을 빚어내기 쉽다. 특히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노사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대학은 장차 그러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여 국민 생활의 質을 높이기 위한 社會管理役割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강력한 요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大衆的 機能'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대학의 연구나 교육활동이 더욱 實用主義的 性格을 띠게 될 것이고 대학과 社會組織(정부, 기업, 사회단체 등)과의 상호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여러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대학생들이 그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직접적 행동을 기도하는 일도 자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선진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국민소득이 크게 향상된다면 대학생들의 급진적 行動主義(activism)가 다소 기울어지고 대학생들이 현실주의적, 개인주의적, 또

는 보수주의적 성향으로 변신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대학생들의 保守化旋回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는 국민소득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최근 점차 심화되고 있는 大卒者就業難이 호전되는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는 앞으로 더욱 成熟한 民主社會로 발전되어야 하며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낙관적 전망은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 중산층의 확대, 도시인구의 증대, 정치적 경험의 축적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政治意識이 더욱 성숙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러 政治學者들은 분단된 韓半島가 가까운 장래에(2000년경까지) 統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는 南北韓의 平和共存體制가 차차 정착되어 가리라고 내다보는 학자들이 많다. 앞으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赤化統一의 야욕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民主統一의 꿈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간의 이데올로기 투쟁과 경제적 국력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대학은 民主主義 理念과 體制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統一民主國家를 달성시키기 위한 중대한 역사적 과업을 안고 있다. 대학은 국가의 基本理念과 目標에 관련된 가치를 창조하고 指導的 政治役割 擔當者들을 배양해야 할 책임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이데올로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大學文化를 특징짓는 기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장차 점점 더 開放的 國際化社會로 변모해 갈 것이다. 교통·통신수단의 발전, 특히 인공위성, 컴퓨터, 전자통신 분야의 공학적 발전은 지구상 여러 지역간의 지리적, 사회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汎世界的인 情報交換體制를 수립해 가고 있다. 한국 사회는 그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안보적 면에서 對外指向的 開放體制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현대 대학은 본질적으로 普遍的 價値와 眞理를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회 조직보다 높은 開放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대학은 學術研究나 教育內容에 있

어서 더욱 강력한 國際化의 요청을 받게 된 것이며 외국과의 학술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가 민주적 도시산업사회로 변천해 가는 과정에서 社會의 價値觀도 점차 변해갈 것이다. 價値體系의 변천과정에서 文化遲滯와 價値混亂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겠지만 대체로 집단주의보다는 個人主義, 권위주의보다는 平等主義, 도덕주의보다는 物質主義, 정의주의보다는 合理主義의 가치관이 점점 더 우세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價値變化는 장차의 大學文化나 大學生文化의 성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

그러면 급속히 다가오는 새로운 未來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의 大學文化는 어떠한 성격을 지니야 할 것인가.

첫째, 한국의 大學文化는 더욱 知性的이어야 한다. 미래에 급증할 知識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학은 研究와 教育의 本來的 機能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發展方向을 설정하고 多元적이고 複合적인 未來社會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학은 理性的 批判과 創造의 探究의 기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은 知性的 探究精神이 충만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大學文化는 人間的이어야 한다. 고등교육이 大衆化됨으로써 대학이 大型化되고 官僚化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변화추세는 앞으로 더욱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이 집단 속에 埋沒되어 가는 個性을 伸張시키고 기계적이고 비정한 조직 속에서 위축되어 가는 創造性과 自發性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에게 자유롭고 따뜻한 분위기와 상호존중과 신뢰의 풍토를 조성해 줄 수 있는 人間的인 大學文化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大學文化는 開放적인 것이어야 한다. 미래의 한국 사회는 더욱 多元化되고 國際化되어 갈 것이다. 대학은 普遍的 價値와 眞理를 추구하는 사회조직이다. 따라서 대학의 本

質的 使命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學術理論, 다양한 文化內容, 다양한 社會理念과 體制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는 開放적인 大學文化를 누려야 할 것이다.

네째, 한국의 大學文化는 民主的이어야 한다. 民主的 態度는 民主的 環境 속에서만 배양될 수 있다. 그러므로 大學行政이나 대학의 組織風土가 民主的이어야 民主社會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 民主社會의 대학은 平等의 원칙에 입각해서 교육의 기회를 계층,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제공하며 심지어는 一般大衆을 위한 社會教育과 社會奉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未來社會의 大學文化는 知性的, 人間的, 開放的, 民主的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大學組織의 세 가지 主要構成集團인 학생, 교수, 行政家들의 行動形態에 대한 合意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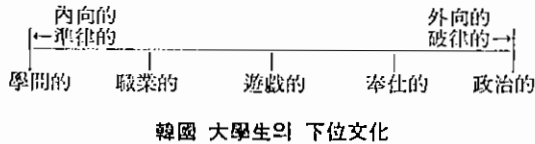
#### 1. 大學生들의 下位文化

오늘날 한국 대학에 있어서 大學生文化에는 反知性的의 요소가 여기저기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대학생들의 놀이문화인 '祝祭文化'는 원초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享樂的 遊戲가 主種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한 '祝祭文化'에는 흔히 社會現實에 대한 학생들의 풍자나 저항이 곁들여 있거나 傳統文化의 재현을 위한 그들의 욕구가 표현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루하고 딱딱한 학업에서 도피하기 위한 'fun subculture'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학의 캠퍼스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대학생들의 政治的 抵抗運動은 韓國 大學文化의 중요한 측면을 이룬다. 사회현실에 대한 대학생들의 불만에서 야기되는 急進的 行動主義는 종종 사회에 대한 理性的 批判의 한계를 벗어나서 感情的 暴力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抵抗運動을 선도하는 학생들의 수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 大學生文化 속에 깊이 스며 있는 '抵抗的 同調主義' 때문에 다수의 학생이 맹목적으로 그 속에 쉽게 휩쓸리게 되거나 적어도 그 운동을 묵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향락적, 저항적 大學生文化의 非知性的 요소는 대학의 本質的 機能을 크게 저해하기 때문에 하루마에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대학생들의 下位文化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假說的 圖式을 그릴 수 있다.



學問的 下位文化에 속한 대학생들은 學問에 뜻을 두고 학업과 연구와 독서에 큰 관심을 가지며, 職業的 下位文化에 속한 학생들은 장차의 職業을 위한 준비와 就業을 하기 위한 활동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 두 부류의 대학생들은 社會改革보다 自己發展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內向的'이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들은 기존의 사회제도나 사회적 조건을 긍정적으로 수락하기 때문에 '準律的'이라 할 수 있다. 政治的 下位文化의 대학생들은 政治的 理想의 실현과 政治制度의 改革에 큰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다. 奉仕的 下位文化의 학생들은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의 복지향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 下位文化는 '外向的'이고 '破律的'이라 할 수 있다. 遊戲的 下位文化의 대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유희활동에 관심이 크다. 이들은 자기발전이나 사회개혁에 대해 무관심하므로 척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대학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 대학생들을 대체로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下位文化로 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경제적 생활수준이 점차 향상하고 대학교육이 더욱 대중화된다면 遊戲的 下位文化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한국 대학생들도 保守化旋回를 하게 된다면 政治的, 奉仕的 下位文化에 속한 대학생은 줄어들고 職業的, 學問的 下位文化의 학생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 2. 大學教授의 下位文化

大學教授는 대학에 있어서 知性的 大學文化를 형성시켜야 할 핵심적 구성원이다. 韓國 大學의 教授들을 사회참여의 방식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社會體制와 理念, 統治集團과 統治方式, 그리고 제반 社會現實 등을 옹호하고 변호하며 지지하는 교수들이 있다. 그러한 사회참여 형태를 '支持的 參與'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교수들은 흔히 '어용교수'라는 이름으로 비난받기도 한다. 둘째는 기존사회의 체제와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고하는 교수들이 있다. 그것을 '批判的 參與'라고 이름 붙일 수 있으며 그들은 흔히 '反體制人士'로 불리기도 한다. 세째는 사회체제의 관리와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교수들이 있다. 그러한 참여를 '專門的 參與'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은 흔히 '지식기사'라고 조롱받기도 한다. 네째로 직접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실이나 실험실에 침거하여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수들도 있다. 이러한 사회참여 아닌 참여를 '은둔적 참여'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교수들은 '침묵하는 지성'이니 '행동하지 않는 양심'으로 원망의 눈초리를 받기도 한다.

社會와 學問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형태의 社會參與를 하는 학자들이 한 사회에 모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에 있어서 社會參與方式이 다른 대학 교수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서로 경계하여 感情的 對立을 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심지어 어떠한 방식이든 社會參與를 하는 학자들을 모두 싸잡아 타락된 지식인으로 보려는 풍조도 시대착오적인 견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보다 創造的 開放社會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학의 학자들이 각자가 선택한 參與方式에 따라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未來社會는 각 분야에서 고도의 專門的 知識과 判斷力을 가진 학자들의 도움을 더욱 요청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사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知的 作業(저서, 논문, 연구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批判할 수 있어야 한다. 學術共同體에 있어서 자유로운 知的 相互批判은 學問

發展의 基本要件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에서는 아직도 학자들의 學術的 批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批判을 행하는 학자나 비판을 당하는 학자가 知的 作業에 대한 비판과 그 학자의 人格에 대한 비판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知的 作業의 결과인 客觀的 文化的 實體에 대한 비판을 그 작업의 주체인 학자의 主觀的 人格에 대한 비판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學術批判을 했다가 영원한 원한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非知性的 風土가 하루바삐 불식되어 자유로운 學術批判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大學文化는 開放的이어야 한다. 만일 大學敎授들이 國粹主義에 빠져 나날이 발전하는 외국의 학문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있다면 學術發展은 제대로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대학의 知的 狀況은 國粹主義보다도 그 반대의 현상에 대한 우려를 더 갖게 한다. 大學敎授들 중에는 외국의 學術理論과 概念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한국의 특수한 社會文化的 條件에 대한 適合性を 검토하지도 않고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 대학에서 사용되는 敎科書와 敎育課程을 한국 대학에서 그대로 이용하거나 외국의 저술을 그대로 번역·편집하여 학생들에게 읽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외국 학문의 분별 없는 도입으로 교육의 適合性問題가 심각히 제기되는 분야는 自然科學보다 人文·社會科學分野일 것이다. 한국 대학은 이제까지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데 급급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남의 것'을 참조하여 '우리의 것'을 創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지 않았나 생각된다.

### 3. 大學의 行政文化

한국 대학은 최근 規模가 방대해짐으로써 行

政文化가 갑자기 官僚化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大規模組織에서는 구성원들의 개인적 자유보다 조직의 位階와 秩序가 강조되고 조직이 公式的 規則과 規定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大學組織이 더욱 複合化되어 가는 것도 行政的 機能, 즉 調整과 分配機能을 강화하는 원인이 된다.

行政要員들의 1차적 行動原理은 行政的 能率性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직목표의 달성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공정한 분배에 관심이 많으며 法律과 規定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大學行政要員들이 行政行爲에 있어서 융통성을 잃게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權威主義的 價値觀이 뿌리깊이 스며 있는 한국 문화에 영향받은 행정요원들은 形式主義와 官僚主義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래서 行政的 能率성을 강조하는 行政要員들과 專門的 自律성을 강조하는 敎授들 사이에 긴장과 마찰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大學에서 이루어지는 研究와 敎育活動은 그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自發的인 參與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될 때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 行政文化의 官僚化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미래에 있어서 韓國 大學組織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그 구조가 複合化될 것이며 그 行政이 官僚化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학내에서의 人間關係는 소원해지고 구성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集團敎育的 狀況에 埋沒되어 個性을 신장시키지 못하고 創意性和 自發性이 위축당할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大學의 行政文化는 大學組織의 官僚化를 극복하고 自由로운 知性的 活動을 조장하고 따뜻하고 人間的인 조직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